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새가족 환영:** 최은기-최지원/최염마, 김진명-이화란/김다나
- **190회 디아코니축제:** 다음 주일 11시 개회예배, 디아코니 본부건물 앞 마당
주제: „Alles, was Odem hat, lobe den HERRN!“ (시 150:6)
여는기도, 성경낭독, 찬양대 및 어린이 찬양/울동, 짧은설교, 중보기도, 축복
음식바자: 탈북민, 우크라이나, 네팔 돕기 기금 마련
- **9월 20일 주일 2부 예배:** Theodor-Fliehdner-Saal에서 드립니다.
- **예배당 진입문 변경:** 10월부터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강대상쪽 출입문 닫고, 정문으로만 출입합니다.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
- **네팔 대홍수 피해 이웃 돕기 헌금:** 9월 말까지(“네팔”이라 표기해 주세요)
- **매일성경 9,10월호:** 세관통관 절차 중, 1주일치 PDF 파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빛나라 야유회:** 9월 9일(수) 11시 Parkplatz Elfrather See P1, 47829 Krefeld
- **지난 주 방문:** 최은정, 성진한
- **귀가:** 권순아-크리스티안 쉬빌라, 배진우-서정인, 김대진-김수경, 최수정-오펜만, 채해웅-홍혜정
- **취임:** 김용원 목사(9월 13일, FeG Worms-Freie evangelische Gemeinde im Kino)
- **NRW교회연합회 목회자 부부 모임:** 9월 7일(월) 12시 Kaarst
- **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 11월 22일 주일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총 7인 위원회)

◆말씀일기 일정

일/삿3:1-11 월/삿3:12-31 화/삿4:1-10 수/삿4:11-24
목/삿5:1-18 금/삿5:19-31 토/삿6:1-10 일/삿6:11-24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88독 (안영희 3독=1독+1필사)

◆ 예배위원 안내 ◆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예배기도	김종권	디아코니축제	장혜진	석혜진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박성희 배진우			
애찬위원	밥상 다섯	밥상 여섯	밥상 다섯	밥상 여섯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3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34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47장	다 함 께
기도/Gebet		김종권 안수집사
찬양/Chor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실버찬양단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사사기 3:1-11	인 도 자
설교/Predigt	잊어버린 백성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47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새가족환영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사사기 2:1-10 '옆구리 가시'◀

여호와를 섬김이 당대를 넘어 계속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7). 이들이 죽고 난 뒤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10).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고, '제대로 보아야 비로소 안다'고도 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알려주고 보여주지 못했던 부모 세대들, 알려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녀 세대들. 신앙의 전수, 섬김의 전수는 그렇게도 힘든 것인가 보다.

무엇 때문일까? 교육을 하지 않아서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가르치려는 부실한 교육이 문제일 수도 있다. 반면에, 나름대로 실한 교육을 하려 했어도 교육받아야 할 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문제일 수도 있다.

교육 만능론도 교육 무용론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세대에 세대를 넘어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시간의 연속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불순종의 욕구만큼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2) 하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은 가만 놔두어도 한 사람의 시간 속에서나, 사회와 역사 속에서 희한하게 잘 흘러간다.

하나님은 사자밥이 되기 일보직전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자들을 통해 구원하시지만, 건져 놓아도 쉽사리 죄악 세상을 향하여 "속히 치우쳐 떠나"(17)가는 자들을 향하여는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곁에 "옆구리 가시"(3)로 머무르게 놔 두신다.

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생겨나기 전에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아니 벌써부터 머무르고 있는 내 '옆구리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하심과 교육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지난 주 봉헌 내역(8월 30일-9월 5일)◀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신형만, 서민규, 민명희, 김한진, 권순아, 두리쉬빌라, 미노쉬빌라	코르넬리우스브룬, 양순이	손민주, 신지연	서민규(선교관) 한상철(장학)
총액 1.497,50유로 = 717,50유로(예배당) + 780,00(온라인)			